

전주서 지방소멸 건축·도시적 해법 모색

제7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페·유희공간 재생' 주제 심포지엄 개최

갈수록 위기가 깊어지는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해법을 찾기 위한 심포지엄이 전주에서 열렸다.

제7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는 7일 전주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페·유희공간 재생'을 주제로 '2023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군산대학교와 전라북도건축사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전라북도·전라북도교육청·전주시가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은 지방소멸 대응하는 공간적 해법을 논의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로, 민·관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소멸에 대한 건축과 도시적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먼저 1부 사례답사를 통해 팔복예술공장과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등 성공적인 페·유희공간의 재생 사례를 돌아보며 공간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제7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7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페·유희공간 재생'을 주제로 '2023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어 김규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2부 심포지엄에서는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팔복예술공장 총괄감독을 역임한 황

순우 바인건축사사무소 소장이 각각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공간정책'과 '유희공간을 활용한 공공건축과 지역활성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서 박성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군산대학교 교수)을 좌장으로 유선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과장과 채홍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과장, 오병록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최선자 전북교육청 과장, 김현 일산건축사사무소 대표, 최병관 공주대학교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와 참여하는 패널 토의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지방소멸에 맞선 공간정책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페·유희공간을 지역자산으로 인식 △각종 재생사업의 통합적 시행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정책성을 담은 공공공간 조성 및 정책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지방소멸은 우리 국가와 지역사회에 큰 과제로 다가왔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페·유희공간의 창조적이고 유용한 자원으로서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의사 주보선'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김민철 전 예수병원장 출간서... 예수병원 주보선 선교사 삶 담아

전주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전 김민철 예수병원장의 출간서가 2023 세종 도서 교양 부문 추천도서로 선정되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의사 주보선'은 삶으로 선교를 보여준 한 의료선교사의 삶과 유산을 기록했으며, 김민철 저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선교 의료법인인 예수병원에서 내과 수련을 받는 동안 주보선 선교사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어 예수병원 병원장을 역임(2004~2010년) 했으며 한국능가회(CMF)이사장과 밴쿠버기독교 세계관 대학원(VIEW) 생명윤리 객원 교수직을 겸했다.

현재 인턴 서브 코리아 이사장이며 저서로 '성경의 눈으로 본 첨단 의학과 의료'(아바서원,2014)가 있고, '상처받은 세상, 상처받은 치유자들'(IVP)와 여러 권의 책을 번역 출간했다.

김병선 예수병원 홍보실장은 "우리는 예수병원 의사 주보선을 통해 환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진지한 의사의 태도를 배웠다. 의료선교병원으로서 생명존중과 기독의사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성장하는데 주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도서는 매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양성 출판 활성화와 독서문화 증진을 목표로 교양 부문과 학술 부문의 우수도서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대학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료로 보급된다.

/김옥기 기자

전북현대모터스FC, 프로축구 지원 전주시에 감사 뜻 전해

대한민국 축구 영웅인 박지성 테크니컬디렉터와 홍정호·김진수·백승호 선수 등 전북현대모터스FC 선수단이 프로축구 발전과 구단 및 팬의 권익을 위해 힘써준 전주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7일 전주시청을 찾은 허병길 대표이사과 이도현 단장, 박지성 테크니컬디렉터, 주장인 홍정호 선수, 부주장인 김진수·백승호 선수 등 전북현대모터스FC 대표단과 환

담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현대모터스FC 선수단은 지난해 홈구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 관람석을 개선한 데 이어 올해 경기장 경관조명과 보안등을 개선하는 등 프로축구 발전과 관람 편의 제공을 위해 힘써준 전주시에 감사를 표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돈독히 하기 위해 전주시를 방문했다.

이날 시청을 찾은 주장 홍정호 선수 등 전북현대모터스FC 선수들은 팀의

연고지인 전주시 발전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5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허병길 전북현대모터스FC 대표이사는 이날 "단 페트루브르크 신임 감독 영입으로 구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선수들의 경기력이 빠르게 회복돼 K리그 막바지로 갈수록 전북현대모터스FC가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전주시가 전북현대모터스FC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늘 감사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좋은 경기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북현대모터스FC는 지역 축구 및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공헌하고,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을 넘어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대표 구단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수준 높은 스포츠 문화를 즐기도록, 전북현대모터스FC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구단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만전

전주천·삼천 퇴적토·수목 제거 등 하도정비사업 지속 추진

전주시가 도심하천인 전주천과 삼천의 물 흐름에 지장을 주는 나무와 퇴적토를 제거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키로 했다.

시는 갈수록 심화되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주천과 삼천의 지장 수목 및 퇴적토 제거 등 하도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하천의 우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통수단면을 확보해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국비 5억 원 등 총 17억 원을 투입해 쌍대리와 서신보, 한백고 인근 등 전주천 3개소와 이도고, 서문초, 중북천 합류점 인근 등 삼천 3개소 등 총 6개소의 지장 수목 및 퇴적토(4만3723m)를 제거했다.

이어 시는 내년도에 총 8억 원을 투입해 우기 전까지 전주천 오목교 인근과 삼천 마전교~전주천 합류점의 지장 수목 및 퇴적토(6만798m)를 제거

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해 전주시역에서는 지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총 358mm의 집중호우가 내렸으며, 특히 7월 14일에는 지난 2005년 덕진동 구법원 일대가 침수된 1일 강수량과 비슷한 기록적인 폭우(일 강수량 240mm)가 하루 동안 쏟아졌다.

하지만 이 같은 기록적인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와 하수관거 정비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장기적 노력, 하천 지장 수목 및 퇴적토 제거 등 단기적 선제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같은 상황은 반복되지 않은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배회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우기 전까지 우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수목 및 퇴적토를 제거하는 하도정비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획득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공정하게 인재를 채용하는 공공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공단은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2023년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공정채용 인증제도는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공정하게 채용하는 모범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채용시범과 채용 운영, 채용 성과 등 3개 부문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며, 3개 부문 합산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한 채용을 통해 올 한 해 86명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성금 500만원 기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임근홍)는 7일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이사장 윤방섭)에 성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전문건설업에 관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북지역 취약 계층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는 등 매년 꾸준한 나눔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임근홍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불가 상금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면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도움에 손길을 내미는 전문건설인이 될 수 있도록 협회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은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모금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온정 나눔에 관심 있는 많은 전주시민과 기업, 단체의 기부참여(문의 063-281-0030)를 기다리고 있다.

/김옥기 기자

